시간제 근로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기사내용 중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시간제 근로자 200만 돌파…100명 중 8명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 정부 고용 정책 영향

20·60대가 절반 이상 차지…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우리나라 취업자 100명 중 8명은 시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취업자는 100명 중 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제 근로자는 꾸준히 늘어왔지만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다.

정부가 시간제 근로를 장려한 영향도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력단절 여성에겐 가사와 함께 바깥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실상은 60세 이상에서 주로 늘고 있다.

1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14만9000명) 늘어난 203만2000명이었다.

시간제 근로자는 평소 일주일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를 말한다. 직장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한 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가 해당한다.

지난 2004년 8월 107만2000명에 불과하던 시간제 근로자는 10년 새 두 배 가량 늘었다. 전체 취업자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2004년 4.8%에서 올해 7.9%가 됐다.

이 기간 남성은 2.1%에서 3.9%로, 여성은 8.6%에서 13.2%로 상승했다. 일자리가 있는 여성 100명 중에 13명 이상이 시간제 근로에 종사한다는 얘기다.

급증세가 나타난 것은 2008년 9월 세계 금융위기 직후부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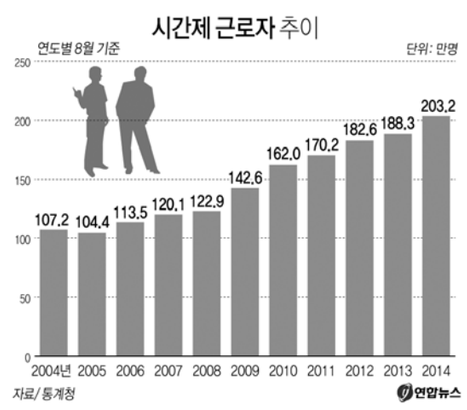
금융위기 전에는 2004년 107만2000명에서 2008년 122만9000명으로 4년 사이에 14.6% 증가에 그쳤지만 그 후 4년간 48.6% 늘며 2012년에 182만6000명이 됐다. 위기 때 불어닥친 고용 한파 탓이었다.

일자리를 늘리고자 정부가 단시간 근로 확산에 나선 것도 증가 배경 중 하나다.

출산과 육아로 시간을 보냈던 경력단절 여성들을 다시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들이려면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한 사정도 고려됐다. 지난 2010년에는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부문에 맞춤형 시간제 근무를 도입하기도 했다.

현 정부에선 짧게 일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받지만 연금과 사회보험 등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해주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했다. 이는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데 핵심적인 정책 방안이다.

그러나 흐름을 보면 60세 이상이 주로 시간제 일자리로 유입되는 모습이다. 심지어 시간제 근로자 중에 절반을 60세 이상과 20대가 차지할 정도가 됐다.



연령대별 취업자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0년간 60세 이상과 20대에서만 눈에 띄게 커졌을 뿐 다른 연령대에선 별 변화가 없었다.

60세 이상에서 시간제 비중은 2004년, 2009년, 2014년에 각각 5.6→9.8→15.8%로 상승해 가장 높아졌고, 20대도 5.2→7.1→11.5%로 올랐다.

그러나 지난 8월 기준으로 30~50대 취업자 100명 중에 시간제 근로자는 4~5명꼴로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여성은 30~50대에서 각각 100명 중 10명꼴인 것을 비롯해 모든 연령층에서 시간제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면 개편 추진

심평원 홈페이지서 건의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그간 불만이 지속돼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 http : //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에서 가능하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경우 환수조치 된다.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반영하고자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함께 도출하기로 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메리케이 핑크드림도서관 28호점 개관

21일 두암동 무등사회복지관

어린이 소망타일 작성 행사도

메리케이코리아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광주시 북구 두암동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핑크 드림 도서관 28호점' 개관식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르면 이날 개관식에는 메리케이코리아 임직원과 독립뷰티컨설턴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내외빈 100명이 참석한다.

메리케이는 2008년부터 사회공헌 활동으로 '핑크 드림 도서관'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4년에는 '저니 오브 드림(Journey of Dreams)'이라는 이름의 핸드 크림 판매로 마련된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해 '핑크 드림 도서관'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개관식에선 어린 아이들이 참석해 핑크빛 꿈을 담은 소망타일 작성하기 행사도 진행된다.

메리케이코리아 노재홍 대표는 "핑크 드림 도서관 후원이 7년째 지속되어 어느덧 28호점을 개관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동구, 잇단 사랑의 연탄배달 '훈훈'

학생봉사회 등 각종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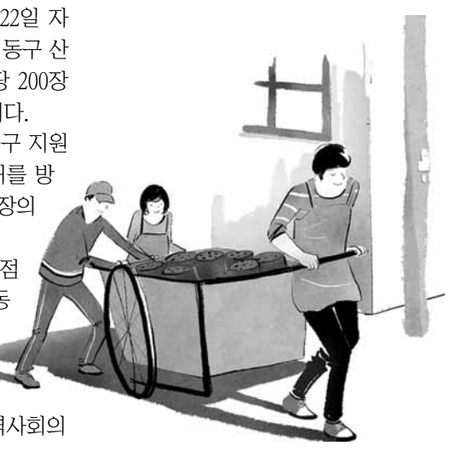
저소득층에 직접 연탄 전달

광주시 동구에서 동절기를 앞두고 저소득층 세대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배달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광주학생봉사활동연구회는 22일 자비로 연탄 1000장을 구입한 뒤 동구 산수1동 저소득층 5세대에 세대당 200장씩 사랑의 연탄을 나눠줄 계획이다.

시 도시공사 직원 30명은 동구 지원 1·2동에 사는 저소득층 10세대를 방문, 한 세대당 300장씩 총 3000장의 연탄배달 행사를 열 예정이다.

동부소방서·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 등 25명은 18일 동구 학동 저소득층 5세대를 방문, 연탄 3000장을 나눠준다.



광주시 동구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각계 봉사단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전달돼 그분들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보성존제산일월사포교원
북구 두암동 561-5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은행건물4층
인해,풍수,사주연구소 연구원
원장 이성호 ☎010-8278-0030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식당옆길)
사주,작명,개명,신수
궁합,택일,개인지도함
☎062)224-7687

그린이용원
북구 양산동 오리궁뎅이뒤
대표 성옥희 ☎010-3225-2735

아담카페식당
동구천변우로 405-10(천변지리산주유소에서콜박스쪽)
오리로스, 오리불고기
삼겹살, 목살, 주물럭
대표 김성훈 ☎062)224-0102

미정
동구 금남로2가 (구)동구청뒤 옛날구미향
계절생선회.일식전문
대표 김봉식 ☎062)236-3177

고전방
동구 궁동 34-4번지(중앙초등학교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이가회관
동구 금남로2가 충장동사무소뒷길
백반, 생태탕, 대구탕, 아구탕
낙지볶음, 각종생선조림
대표 이복례 ☎062)224-1541

아워홈테크
북구 우산동 617-10 문화중학교 담도로
한샘ik제휴점 아파트.주택.리모델링
abs도어 연동문 씽크대 붙박이장
대표 김창두 ☎010-6635-7224

무등국밥
동구 금남로 2가 (구)동구청뒷길
머리국밥, 순대국밥, 내장국밥
☎062)228-7705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골든보석
북구 우산동 187-8번지
말바우시장축산농협건너편
예물귀금속전문점
대표 김춘복 ☎062)512-8100

오리백년(두암직영점)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건너편
오리한방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옻닭, 오리장어탕
☎062)401-5253

골든전당포
북구 우산동 187-8번지
말바우시장축산농협건너편
귀금속 전당 고급시계 전당
대표 김춘복 ☎011-624-9200

올레예술회관
동구 금남2가 (구)동구청뒷길
생고기비빔밥 낙지비빔밥
갈비탕 소머리국밥
☎062)222-8653

장충동왕족발보쌈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족발 소, 중, 대 보쌈김치
신속한배달카드결재가능
☎1588-3300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다나베옴므
동구 남동 169-4 (충장로1가입구민속촌옆)
호남최고 맞춤정장 결혼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

호선갤러리
동구예술의거리10번지
미술품전시및대관
대표 부영진 ☎010-5680-1188

행복한밥상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
우산공원건너편골목혜성유치원옆
백반, 아구탕, 아구찜, 단체예약손님환영
대표 정지섭 ☎062)252-3033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9655-7765

거금조경
북구 두암동 미라보아파트 사거리 으뜸주유소맞은편
굴취, 전지, 식재, 벌초.산일, 이장
예초.정원자연석사추
대표 소정택 ☎062)268-7709